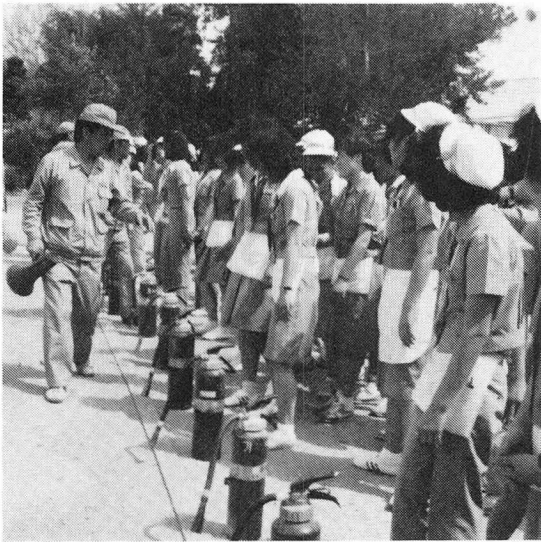


# 철저한 소방훈련으로 초기진화에 주력

취재 : 정 유 근 <홍보부>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8만여평의 광대한지역 어디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 -.

방적공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각종 소방설비보다 화재예방교육과 초기진화를 위한 소방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철저하고 완벽한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방림방적을 찾았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방림방적주식회사(사장 朴榮錫)는 1935년 일본 중연방적 경성공장으로 출발한 이래 2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기업풍토에서는 보기드물게 섬유외의 다른 업종에는 눈을 돌려본 일이 없는 기업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방림방적은 최근에 방염원단 프리망을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커튼지등 실내장식용 원단, 이불포지등 침장류용

원단의 방염처리 가공에 성공함으로써 동업계의 선두주자다운 면모를 또한번 과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화재사고에 있어서 내장재 및 각종 화학섬유로부터 발생하는 화학성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난연성이 뛰어난 방염처리 원단의 생산은 크게 주목받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원면을 취급하는 면방공장은 공정상 화재의 발생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히 확산되어 진화가 매우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다.

방림방적은 원면 1일처리량만 해도 46톤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연면적 6만 1천평)의 방적공장.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스스로 효율적인 소방대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고 있음은 역시 뛰어난 경영안목 탓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설비라 해도 이를 다루는 사람의 정신차세와 능력에 따라 그 기능은 좌우되기 마련이다.

방림의 경영진들이 실제훈련에 의한 소방능력향상과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방화의식고취를 중시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같은 아주 평범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방림방적이 방화계획을 통해 가장 역점을 두고있는 점은 원면취급 공장의 취약점을 고려한 화재의 초기진화교육 및 훈련이다.

소방계획 실무를 맡고 있는 南肯祐 안전과장은 다음과 같이 초기진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올 정도의 시간이면 사태가 벌써 늦어버린 겁니다. 발화 5분 이내에 불을 잡지 못한다면 정말 견잡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소화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만일 소화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서 불이 확산된다면 다음 단계에선 옥내소화전이 불을 잡아줘야 합니다. 초기에 불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들은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소화기 기종을 포말소화기에서 ABC분말소화기 4.5kg으로 전부 대체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제재를 받아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방효과를 염두에 둔 조치였죠. 우리 내부 규정에는 7백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천 3백개 정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소방계획은 효율적인 초기진화를 위한 지역방어에 중점을 두고 각 공장단위로 분할해서 각종 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소방훈련의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보면 민방위의 날 훈련, 각종 정신교육시 영등포지역 소방관서장 초빙강연및 한국화재보험협회 불조심 계몽영화 상영 등 외부기관과 연관된 정기교육외에 자체계획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우선 신입 종업원에 대하여는 두시간의 소방교육을 실시, 방화의식을 심어주는 한편 평소에는 수시로 공장별 특성에 맞는 야간불시훈련을 시키는데 근무체제가 갑·을·병 3개조로 순환근무토록 되어있으므로 누구나 한번 이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개 공장에 최소한 세번이상 철저하게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 발화초기에 1차적으로 화재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여자종업원의 경우 대부분 불을 무시위하거나 소화기를 사용할 줄 몰라서 당황하다가 초기진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난 4월4일부터 5월9일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4천여명의 전체 여종업원에 대해 소화기사용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시 소화기약제등을 아끼게 되면 훈련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고 소화기의 사용은 무제한으로 허락했다고 한다.

공장건물이 노후한데다가 공정상 방화구획설치가 불가능하고 최신 방화설비 또한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는 작업중인 종업원의 민첩한 소방능력향상만이 화재발생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 종업원의 소방훈련에 치중하는 방림의 경영방침은 일단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경영진의 높은 관심도에 대해 南과장은 『회장님 이하 전 경영진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특히 방화관리 책임을 맡고 계시는 감사님은 소방계획에서 부터 교육훈련에 까지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종업원 소화기 훈련에도 매번 참관하셔서 이 훈련의 목

적을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또 3년전부터 감사를 의장으로 하고 각 공장별 부장급이상 간부가 참석하는 소방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지요. 이 자리에서 시정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보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南과장은 이어 『소방협의회에서는 소방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행정명령에 따르기 위한 대책수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화재진압문제, 예방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화재요인 제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한가지 예로 방적부분의 공정이 가장 화재에 취약한 부분인 점을 감안해서 방적공장의 모든 전선관계 설비를 지하에 매설토록하고 모터를 동력으로 하는 정방기를 개조하여 인화가능성을 제거했다. 뿐더러 방적공정중 혼타과정에서는 숨이 기계속으로 들어갈 때 전기스파크에 인화될 가능성이 있어 숨이 돌아가는 부분에 전자석을 대는등 빈틈없는 사전예방조치들이 소방협회의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철저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취재팀이 정문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미 정중한 경고를 받아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터였으나 흡연에 관한 규칙을 설명되었을 때는 약간 섬찝한 느낌마저 들었다.

공장내에 57개소로 지정된 흡연장소 외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만일 종업원이 이 규칙을 어길 때에는 인사조치토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저절로 담배를 끊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귀뜸도 쉽게 수궁이 갔다.

화보험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南과장은 『지적사항이 실무자가 느끼는 것과 거리가 있고 실제로 개선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법규나 원칙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성이 결여되기 쉽고 점검을 위한 점검이 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화재예방 안전점검이라는 목적에 맞게 현실을 감안한 실속있는 점검과 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방화관리자로서의 실무적인 지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러 차례의 대형화재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소방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왔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과 산업구조의 팽창에 비해 불 때 소방기술이나 소방행정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만족할만큼 성장해 왔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않다.

깊이있는 기술의 축적이나 원활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